불자 세상보기

지역주의 또 들썩…"망국병 뿌리뽑자"

또 지역주의인가. 선거때만 되면 열병처럼 번지는 망국병 '지역주의'가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지역주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화합운동연대가 공개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보면 이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은 YS가문과 DJ가문 등 양대 가문간의 싸움이다" "우리가 남이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다시 뭉쳐 나라를 살려내자" "충청도의 한을 풀어보자" "강원도는 남좋은 일만 해준다" 등의 발언은 차라리 신사적(?)이다.

"역대 대선에서 ○○선생을 찍지 않은 ×××들" "여당이 ○○지역 아들·딸들을 조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등의 저속한 표현이나 유언비어성 발언 등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서로가 이런 난리를 피우면서도 상대당(黨)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느니, 지역감정을 조장하느니 하면서 책임은 없다는 식이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런 짓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짓이라 생각하겠는가.

〈백유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던 악귀(惡鬼)가 나온다는 낡은 집에 어느날 대담함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큰소리치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대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는 줄만 알고 문을 막았고, 나중에 들어가려던 사람도 귀신의 장난으로 착각해 두 사람은 밤새 싸운 끝에 날이 밝아서야 서로 바라보고 상대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들이 시비를 잘못 헤아리고 분쟁을 억지로 일으킴이 이 두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지역감정도 마찬가지다. 귀신의 실체가 없었듯이 국민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서로를 귀신으로 여기고 싸운 두 사람과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된 '지역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다.

다행히 국민화합운동연대가 벌이고 있는 '지역감정 조장 추방 캠페인'에 15일 현재 192명의 현역의원이 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을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실체를 찾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바로 참된 '자신(我)'을 찾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지역주의 부추기기에 단호히 노(NO)라고 답할 수 있는 국민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지역대결로 얼룩진다면 국가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아예 이번 기회에 지역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인지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흥청 샴페인

고급외제옷 없어서 못팔 지경
해외여행 급증…여행수지 적자

한벌 가격이 최소 150만원을 웃도는 외제 고급 여성복이 다시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 두 곳에서는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한다. IMF 이후 한국에서 철수했다가 재진출한 외제 브랜드가 현재 최소한 20개를 웃돌고 있으며, 앞으로 2~3개월내 1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금년 1월 의류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93.3%나 급증했다는 산업자원부의 통계 수치는 벌써부터 '흥청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해외여행 발길이 급증한 것도 좋은 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여행수지가 4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27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만도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은 43만2000명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수 31만2000명에 비해 12만명이나 많았다.

〈일체루경〉에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사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과연 150만원짜리 옷을 입고 해외여행을 안방 드나들듯 해도 되는 처지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15일 김포국제공항 2청사 대합실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호화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모유서 다이옥신 다량검출

식약청 발표 "섭취허용량 24~48배"
"수유기간 짧아 아기엔 영향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우리나라 산모들의 초유(初乳·출산 후 처음 나오는 모유)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24~48배 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벨기에산 쇠고기의 다이옥신 파문으로 전세계가 홍역을 치른 이후 모유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정부기관의 공식보고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유 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더라도 모유는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식품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상황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모유를 먹이는 기간이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 발표에서는 유통중인 탄산음료, 식혜, 커피, 과일주스 등 캔식품과 끓는 물을 넣은 유아용 젖병에서도 다이옥신과 같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돼 있는 비스페놀A가 검출돼 환경오염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새삼 확인시켰다.

노원구 매주 월요일 '칭찬의 날'로 정해

서울 노원구가 매주 월요일을 '칭찬의 날'로 정해 명랑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만들어 칭찬운동을 구민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칭찬에 인색(?)한 불자들도 이 기회에 스님은 신도에게, 신도끼리, 신도는 가정에서 '칭찬하는 날'을 정해보자. 그리고 직장마다 가정마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쯤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해킹극성…전세계 몸살

인터넷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야후와 바이닷컴을 시작으로 8일에는 이베이, CNN, 아마존이, 9일에는 ZD넷과 이트레이드와 같은 해외 유명 사이트들이 몇 시간씩 접속불능이 되는 인터넷 사상 초유의 대형사고가 났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2년간 해킹사례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업체나 대학뿐 아니라 연구소와 정당, 국가기관까지 해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킹의 파장이 큰 이유는 전세계가 인터넷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인데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아무도, 그 어느 나라도 해킹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막는데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방어기술이 개발되면, 곧바로 해커들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제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으며, 해킹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시체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

'계율을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불교의 공동체 이념은 무엇보다도 사이버 윤리가 절실함을 말해준다.

시론

생명이 더 급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은 뒤로 제쳐놓고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에 지나친 가치를 두고 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치열한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온갖 질병과 사고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방귀희
〈숫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이식이라는 최상의 생명연장법을 개발해 내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장기는 죽어도 가져가야 할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여겨 장기이식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장기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 "장기이식 놓고 정부-민간단체 아옹다옹 꼴불견"

그래서 주로 가족들이 자기 장기를 떼어주는 핏줄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혈연 중심의 장기기증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자 서로 장기를 나누는 장기기증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기기증운동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뇌사의 인정을 주장해 왔었다.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였지만 장기이식의 수급이 맞지 않아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해야 했고 장기밀매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서 오히려 생명을 매매하는 반인륜적인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제 우리 나라도 생명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법의 효력이 반감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에 이르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이 늑장을 부리며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다.

그동안 몇몇 민간단체들이 나름대로 생명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고 장기이식에 대한 경험도 꽤 축적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들은 빠지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만 잘 하면 된다는 안일한 관료주의적 편견주의 작태이다.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급히 달리는 앰블런스를 보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놓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환자를 서류에 도장찍는 일 때문에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살인행위이다.

민간단체와 의료기관들도 철저한 정부감독아래 이식자·피이식자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은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장기기증은 하나의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장기기증을 하나의 불사(佛事)로 실천해야 한다. 장기기증은 불교의 무소유 사상을 펼 수 있는 가장 불교적인 보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염·방부·방충·방수)
효과
1.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3.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4.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 통기성(Breathing) 양호·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MOLD-MOVE (곰팡이 이끼 제거제)
효과
MOLD-MOVE(곰팡이 이끼 제거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본 제품은 버섯, 진균류, 곰팡이, 이끼, 백선, 해조류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제품은 도포시 주변의 어떤 화초나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 자연 소멸되는 제품이다.
용도
· 목재: 문화재, 사찰, 한옥, 통나무 주택, 목조 주택, 나무(과수, 관상수) 기타
· 콘크리트: 벽돌, 대리석, 화강석, 모든 석재 등
· 기타 사용범위: 공항의 활주로, 운동장, 수영장, 정수장, 테니스코트, 방파제, 항만, 부두의 창고, 잔디밭 등 이끼가 발생하는 곳에 적용함.
MOLD-MOVE로 곰팡이, 이끼 등을 제거하고 WOOD-SEAL 및 PRO-SEAL로 처리하면 수년간 재발생하지 않는다.
15주년 경·향·하·우·징·페·어
2000.2.24~29 COEX 3F - F411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우주의 생명에너지
레이키(REIKI·靈氣)법 전수
레이키법은 기공수련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속성식 氣 능력자 양성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법은 우주에 가득차 있는 무진장한 레이키(사랑=빛=우주생명에너지=氣)를 언제나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법입니다. 레이키법은 소주천을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주천의 천지 기운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레이키에너지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사람, 동식물, 생활용품 만물(환경도 포함)에 작용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중남미, 일본, 동남아, 오스트랄리아 등지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21세기에는 레이키에너지는 세계 인류의 각 가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도구로서 자리잡혀 갈 것입니다. 의료비의 절감과 생활의 질의 향상 등의 인류의 복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키에너지 입니다. 레이키법은 좋은 기공법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이 레이키법을 전수받으면 능력이 향상하고 레이키 요법가도 기공수련을 하면 능력이 향상합니다.
나(박희준)는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분야의 번역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에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기공수련도 해 보았으나 氣 치료 능력자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부터 여러차례 외국을 내왕하면서 폭넓게 레이키법을 전수받고 상당한 氣치료 능력자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전수받을 것을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사업관련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요 70만원⊙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한국불교예술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하고자 제2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과정 : 기초과정
2.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3. 교육기간 : 각 과정 3개월 기본(1년 과정) - 개강 3월 2일
(매주 수, 목, 금 또는 토 오후 2시~4시: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 교육동참금 : 매월 10만원
5.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자격증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모집부분	과 목	강 사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중등과정	바라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다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고등과정	사다라니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각종의식 강의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대학과정	삼귀의작법무 영산제 및 운심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